

이슈

2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제2872호

내가 왜 떴게?

“헨리씨! 불나면 사업 대박 난답니다”



헨리

●헨리 식당 화재 : SM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헨리. 가수 겸 방송인으로 살고 있는 헨리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대만 음식점의 사장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음식점이 있는 가게 건물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 식당 측은 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건물 내 타 매장 화재로 식당 영업을 당분간 휴무한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라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불나면 사업이 대박 난다더라”며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헨리씨! 이제 불맛까지 더해졌으니 진짜 대박맛집이 될 겁니다.

“등록곡만 420곡, 3대가 먹고 살겠네”



김이나

●김이나 저작권료는 얼마나 될까 : 김이나는 아이유의 ‘좋은 날’, 브라운관 ‘아브라카다브라’ 등의 가사를 쓴 스타 작사가다. 김이나의 저작권료가 화제다. 그는 2014년 자사 부문 저작권료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이나의 이름으로 등록된 곡만 420곡이다. 저작권법이 개정돼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김이나는 “결혼한 뒤 안정감이 생겨 더 많은 가사를 쓸 수 있었다”고 했다. 히트곡이 워낙 많은 작사가인 만큼 그가 벌어들이고 있는 저작권료가 상상 이상의 액수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이쯤 되면 김이나의 저작권료는 3대가 먹고 살 유전이네.

“1등에겐 200만원 드림”



하하

●스컬&하하, 새 이름 공모 : 하하가 SBS 파워 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새 이름 공모에 나섰다. 이유는 사람들이 자꾸만 ‘스컬&하하’를 헛갈려 한다는 것. 하하는 “진심이다. 목요일 코너인 컬투작명쇼에서 새 이름을 지어 달라”고 요청했다. 3등 휴대 고깃집 20만원권, 2등 저작권료 100만원, 1등 2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 ‘스컬&하하’를 헛갈려하니 ‘하하&스컬’은 어떠신지. 서로 공평하기도 하고, 이제 고기를 주세요!!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여기는 평양”... 남·북 ‘통일농구’ 위해 15년만에 북한으로 간 허재 감독



허재 감독(맨 오른쪽)과 이문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남녀농구대표팀이 통일농구대회 참가를 위해 3일 북한 평양에 당도했다. 평양순안공항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단.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설레는 허재 “북한 친구들 많이 변했겠지?”

〈이명훈·박천중 등 15년전 만났던 북한선수들〉

15년전 평양 방문때 선수로 참가

만찬때 北 이명훈·박천중과 술잔

이번엔 허웅·허훈 두아들도 동행

4일 남·북 혼합경기·5일엔 친선전

한국남녀농구대표팀이 통일농구대회 참가를 위해 3일 군용기를 타고 성남공항을 통해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

통일농구대회를 위해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단장)을 비롯한 정부대표단과 남·여 농구대표팀 선수단 101명이 북한 방문에 나섰다.

평양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북측은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평양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남측 정부대표단과 선수단을 맞았다. 원 부상은 조 장관과의 환담자리에서 “남측 성원들을 여러번 만났는데, 만나볼수록 정이 통한다”며 방문을 반겼다. 통일농구대회를 통해 남북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통산 4번째로 2003년 정주영체육관 개관기념으로 평양에서 경기가 치러진 이후 무려 15년만이다.

한국남자농구대표팀을 맡고 있는 허재



한국남녀농구대표팀이 3일 북한 평양 고려호텔에 도착해 현지직원들의 환영인사를 받고 있다. 선수단 앞 오른쪽은 남자대표팀 귀화 선수인 라들리프. 평양 | 사진공동취재단

(53) 감독은 북한 방문이 각별하다. 그는 현역선수 시절이었던 2003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15년의 세월이 흘러 허 감독은 선수 국가대표 감독으로 다시 북한을 찾았다.

평양으로 떠나기 전 허 감독은 “선수 때에도 설레기는 했지만 그때는 그냥 갔던 것 같다. 15년 만에 감독으로서 가니 감회가 새롭고, 설레기도 한다. 북한 선수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다. 선수 때보다 감독으로 가는 것이 더 설레고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번 남자농구대표팀에는 허 감독의 두 아들인 허웅(25·국군체육부대), 허훈(23)이 포함돼 있다. 아버지는 감독, 두 아들은 선수로서 부자가 함께 북한 땅을 밟는 셈이다.

허 감독은 2003년 평양 방문 당시 경기

후 남북 선수단 만찬 자리에서 당시 북한의 간판 선수였던 이명훈, 박천중 등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친분을 쌓은 바 있다. 235cm의 장신센터였던 이명훈은 은퇴 후에도 북한에서 인민영웅 대접을 받고 있으며 주포로 활약했던 박천중은 체육성 국장 자리에 있다.

2016년 중국 우한에서 열린 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만난 박 체육성 국장은 “허재 형은 아직도 술을 그렇게 잘 마시나? (국제)대회 때 얼굴 마주치고 통일농구 만찬 때마다 같이 술 마시면서 금세 친해졌다”며 허 감독의 안부를 묻기도 했었다.

남녀농구대표팀은 4일 남북 혼합경기를 치르며, 5일에는 남북간의 친선경기를 소화한다. 혼합경기는 남북 선수들을 섞어 각각 평화팀과 번영팀으로 구분해 치러지며 남북 감독이 한 팀씩 맡을 예정이다. 친선경기는 청팀(남)과 홍팀(북)의 대결로 진행된다. 하루에 두 경기(남자부·여자부)씩 이를 간 4경기가 펼쳐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농구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고 잘 알려져 있어 이번 대회 현장을 직접 찾을 가능성이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허벅지 부상 박주호 ‘6주 진단’

2018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한 K리그 소속 선수들이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 모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참석할 예정이었던 박주호(31·울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행사를 주관한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박주호가 부상이 생각보다 심해 참석하

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 관계자는 “박주호가 2일 구단지정 병원에서 월드컵 때 다쳤던 허벅지 근육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근육이 완전히 파열됐다는 소견을 들었다. 수술을 받아도 되지만 휴식을 취하면서 회복하는 쪽으로 결

근육 파열...수술 대신 재활 선택
복귀까지 최소한 두 달은 걸릴 듯

정했다. 집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다. 박주호는 지난달 18일(한국시간) 스웨덴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전반 28분 볼을 받기 위해 점프를 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통증을 느껴 교체됐다. 울산 관계자는 “회복에만 6주가 필요

하다는 소견이다. 복귀를 위한 훈련과정까지 포함하면 최소 두 달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겨울이적시장에서 울산 유니폼을 입은 박주호는 K리그 11경기를 비롯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측면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며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 덕분에 대표팀에 승선해 월드컵 무대를 밟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이강인 부친 “귀화 고려해 본 적도 없다”

“스페인 언론 보도는 사실무근”

이강인 향한 뜨거운 관심 증명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언론이 제기한 이강인(17·발렌시아B)의 귀화설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3일 “이강인의 부친인 이운성씨에게 스페인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을 문의했다. 아버지 이씨는 귀화 자체를 고려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수페르데포르테는 하루 전 “스페인왕립축구협회(RFEF)가 이강인의 귀화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축구 재능이 뛰어난 이강인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 언제가는 국방

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에 RFEF가 귀화를 추천하고 있으며 이강인이 내년 6월 30일이 되면 스페인 거주 8년차가 돼 귀화조건이 성립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매체도 한국 U-20 대표팀에 선발돼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진 톨롱컵에 참가했던 이강인이 한국 국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며 실제로 귀화할 가능성은 높게 전망하지 않았다.

결국 스페인 언론이 제기한 이강인 귀화설은 말 그대로 ‘설’로 마감됐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스페인 축구계에서도 이강인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증명됐다. 이강인이 발렌시아와 재계약을 하면서 바이아웃 비용을 8000만유로(약 1042억원)로 책정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는 이미 스페인을 대표하는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다.

최용석 기자

유진한 기자의 카!툰

haja1787@donga.com

